

<서평>

***From St. Jerome to Hypertext:
Translation in Theory and Practice***

(Per Qvale, Norman R. Spencer, trans., Linda Sivesind and Kirsten Malmkjær,
rev.,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2003)

안근조*

본서의 저자 퍼 크발레(Per Qvale)는 노르웨이 문학번역가협회 회장과 번역문학학회 회장을 역임한 번역 전문가이다. 본서는 원래 『A부터 Z까지 살펴보는 번역의 논쟁점들』이라는 제목으로 1998년에 노르웨이어로 쓰여졌다가, 2003년에 이르러 스펜서(N. R. Spencer)에 의해 『성 제롬으로부터 디지털문서까지』라는 제목으로 영어로 번역되었다.

『성 제롬으로부터 디지털문서까지』라는 제목에서 확인되듯 본서는 고전적 의미의 번역으로부터 오늘날 컴퓨터로 정보화된 디지털 문서화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번역에 관련된 이론과 실제의 다양한 분야를 학제간의 연구를 통해서 심도 있게 고찰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저자가 목표하는 바는 번역 이론의 확립에 있다.

따라서 본서는 서론에서 과연 번역 이론이 가능한지를, 아니 그 이전에 번역 자체가 불가능한 작업이 아닌지를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이어 제1장에서는 번역 이론의 성립과 발전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조명하면서 오늘날 더욱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과학적 이론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번역 과정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인 저자와 번역자 사이의 관계를 논의하면서 번역의 능동적이고도 고유한 특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번역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제4장과 5장은 각각 구문론과 의미론의 문제를 다루면서 번역 이론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의 관계를 기존의 언어학적 논의를 뛰어넘어 기호학적인 차원에서 논의하며 더불어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제6장에서는 본격적인 의미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번역을 의미와 이해의 문제로 보았을 때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해석학적 문제를 전개한다. 특히 기존의 “동등성 또는 일치”의 개념을 재고하고 있다. 끝으로 제7장에 이르러 번역의 과정을 학문적으로 이론화하기 위한 필자의 노력을

* 호서대학교 교수, 구약학.

현대의 다른 번역 이론가들과의 대화 가운데 시도하면서, 번역 자체가 상이한 두 언어로 대표되는 세계들 간의 신비한 접합점을 위한 노력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본서의 장별 중심된 논의와 주제들을 요약하고 끝으로 본서의 공헌과 한계를 지적하려 한다.

1. 서론(Introduction)

먼저 저자 퍼 크발레는 자신의 책이 문학 번역(*literary translation*)에 대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음을 밝힌다. 본인은 번역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시도하고 있지 않음을 겸손히 표현하지만, 실제로 그는 주된 논쟁점들을 거의 다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학문서가 아닌 비문학적 표현들인 TV나 영화 또는 컴퓨터 영상 등의 멀티미디어에서 행해지는 번역에 대해서도 책의 말미에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을 정도로 그의 논의의 폭은 광범위하다.

저자가 모든 논의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언어학 연구의 목적이 다양성 가운데 소통을 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소통은 문화적 영역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향상되는 것 또한 지적한다. 한 가지 예시로 바벨탑 사건을 든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언어를 혼돈케 하셨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후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임재의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통역하고 다른 언어 사이의 소통을 가능케 하였음을 논의한다. 그곳에 모인 로마제국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듣게 되는 사건(다양성 속에서의 소통) 자체는 바로 번역의 기원에 대한 성서적 증언이다.

그러나 번역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로 인해 그리고 그 정의들 간에도 모순되는 현상들의 발견을 통해서 번역이란 “불가능한 예술”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주관성이요 또 다른 하나는 역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에 관련된 이론적 고찰은 실제적 번역 현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번역 이론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의식 자체가 실제 번역 현장에서 보다 나은 해결점들을 찾도록 도와주며 또한 잠재된 지식의 형태로 자료의 풍성함을 더해주기 때문이다.

2. 제1장: 번역학 그리고 번역 연구

2.1. 역사적 조명을 통한 번역 이론

382년경 제롬은 교황에 의해 기존의 라틴어 성서를 개정할 것을 명령 받는다. 그 이후 제롬의 별게이트 번역본이 나오기까지는 총 23년의 세월이 흐른다. 제롬의 성서 번역의 원칙은 문자적이 아니라 의미 중심이었다. 이는 그 시대 당시의 문자적 성서 번역의 신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태도였다.

그러나 번역 이론의 시조는 제롬이 아닌 키케로(106-143 BC)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는 최초로 문자 중심의 번역보다는 의미 중심의 번역을 이야기 한 장본인이다. 마틴 루터는 제롬과 같은 기본적인 번역 원칙을 수용한다. 루터의 성서 번역은 개혁적인 것으로서 풍부하고도 생생한 구어체를 쓰고 있다. 그의 번역이야말로 “원천 언어 중심”이라기보다는 “수용 언어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미 존 위클리프(1330-84)가 구어체 영어로 성서를 번역한 바 있고 1516년 에라스무스에 의한 신약 성경의 라틴어 번역본이 마틴 루터가 번역할 때에 참고가 되었다.

윌리엄 틴데일(1494-1536)의 번역 또한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되었다. 그의 번역은 은유적인 구문들과 대중적 연설의 음색을 살리는 강한 수사학적 표현으로 유명하다. 1611년에 나온 제임스왕역본은 바로 틴데일 번역판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후의 번역에 대한 접근 가운데 프리드리히 슈라이어마흐(1768-1834)는 원천 언어 중심적인 입장을 펴고 있으며, 반면에 프리드리히 슐레겔(1772-1829) 같은 이는 번역을 기계적인 작업으로 보지 않고 영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으로 보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의 형인 오거스트 슐레겔은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아 모호성과 불가해성은 접근 가능하며 표현 가능함을 주장한다. 또한 소통이라고 하는 개념은 메시지의 풀이와 해석이기에 모든 말과 글은 번역의 과정임을 밝힌다.

2.2. 현대 번역 이론의 개화

윌터 벤자민(W. B. S. Benjamin)은 그의 저서 『번역자의 과제』(1923)에서 번역할 때에 번역되지 않는 ‘핵심’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내용과 언어의 관계가 원천 본문과 수용 본문에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번역자의 과제는 원천 언어의 의도와 공명하는 수용 언어의 표현을 발견하는 일이다. 그러나 저자 페르 크발레의 비판은 벤자민이 두 다른 언어의 의도에 집중 한 나머지 각 단어들이 관계하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여전히 벤자민이 주장하는 바, 모든 형태의 표현은 진정으로 “의도된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표현이기에 그 감추어진 의도가 어느 순간에 드러날 것이요 번역은 이 계시의 과정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벤자민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통합적 언어가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모든 언어는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번역자의 궁극적 과제는 바로 이 하나의 “순수한 언어”를 그대로 드러내 주는 일이다.

노암 촘스키(Noam Chomsky)는 『구문론적 구조』(1957)에서 언어의 ‘심층구조’와 ‘표피구조’에 근거한 “변혁론적 문법”(Transformational Grammar)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번역이라 함은 표피구조를 재구성 또는 변화시켜 보편적인 심층구조를 묘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흄볼트의 언어의 내적 그리고 외적 형태 논의의 발전된 이론이며 어떤 면에서는 벤자민의 언어 이론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촘스키는 번역 과정 자체는 언어 외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도 정의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반면에 유진 나이다(Eugene Nida)는 언어학뿐만 아니라 학제적인 번역학 연구를 강조하였다. 이는 번역에 있어서 과학적 객관성을 얻으려는 노력이다. 나이다에게 있어서 번역이란 원천 언어가 표현한 메시지에 가장 가까운 의미와 스타일을 재생산해 내는 일이다. 후에 나이다(1995)는 가장 가까운 동일 의미를 찾는 것이 과장되었음을 인정하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문맥에 집중할 것을 권고하였다.

자끄 데리다(J. Derrida)에게 있어서 번역의 문제들은 그의 해체 철학의 중심된 논의를 이룬다. 왜냐하면 각각의 인지활동은 본성상 번역 작업이기 때문이다. 데리다는 번역을 논함에 있어서 양자 사이의 유사성에 집중하기 보다는 차이점에 집중한다. 원천 언어의 표현이 또 다른 구조를 포함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앞선 벤자민과 유사하다. 그 다른 구조가 번역문의 불안전성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본문에 생명을 불어넣고 새로운 번역에 열려 있게 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번역을 통해서 원문은 성장하고 성숙한다.

2.3. 과학이론에 힘입은 번역 연구들

1970년대 후반부터 번역 이론에 대한 연구는 문학 번역(literary translation)에 집중하게 된다. 테오 헤르만스는 『문학의 조작』(1985)에서 하나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체계로서의 문학은 그에 대한 번역 또한 보다 더 큰 문학적, 사회적 그리고 기능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번역 연구가 언어학 이론과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또는 기존의 문학적 이론에 근거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들로 인해 기존의 이론들과는 별개로 학제적 접근으로 나아가게 된다. 즉 다양한 관점의 번역 연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석학적 관점, 미학적 관점, 언어 요소의 대치, 심리언어학적 과정, 문학적 교환, 또는 의사소통의 행위 등.

가다머(Gadamer)와 포글러(Vogler)에 의하면(1975) 번역이란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의식의 구체화”이다. 번역자는 그들 자신과 그들 자신의 이익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와 유사하게 아펠(Apel)은 번역이란 객관적으로 순수한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바스넷(Bassnett, 1991)은 헤르만스에 반하여 번역이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라 문학 연구에 있어서 최상위의(superordinate) 연구 과제임을 주장하고 있다.

2.4. 번역의 실제

이 섹션에서 퍼 크발레는 노르웨이의 번역문학을 소개하면서 실제적인 번역들이 오늘날 노르웨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3. 제2장: 저자와 번역자

3.1. 저자의 창의성과 번역자의 창의성

저자의 목소리(author's voice)와 저자의 작품을 통한 목소리(authorial voice)는 다르다. 우리는 이 저자의 작품을 통한 목소리를 설화자의 목소리(narrative voice)로 본다. 바로 이 설화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특별한 이야기의 특징과 이야기 리듬, 독특한 억양/변조, 특유의 문학적 특색을 독자들이 경험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번역자의 목소리 또한 듣고 감지한다. 그 번역자의 목소리는 저자의 본문 세계를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번역자가 얼마나 원본문에 문자적으로 충실해야 하는가 아니면 자유로워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원문에 문자적으로 충실한 번역가들은 오히려 저자나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또한 번역자가 저자의 작품을 통한 목소리와 저자의 비전 중 어떤 것을 재생해 내는가의 문제 또한 중요하다. 때로는 저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는 않아도 저자의 비전(이야기에 있어서 정수)을 반영하여 성공적인 번역으로 인정받는 때가 있다.

번역자가 나타나야 하는가 안 나타나야 하는가의 이슈는, 다른 말로 번역자가 부각되는가 아니면 흡수되는가의 문제이다. 번역자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설화자의 목소리를 제시하려고 노력함을 통해서 그들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문제는 번역자들이 나타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로 나타나야 하는가에 있다. 번역자들은 본문에 어떠한 흠집을 내서는 안 되지만 자연적으로 본문에 흔적을 남기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저자와 번역자 사이의 관계를 전통적으로 주인-노예 관계로 묘사해 왔으나 오늘날은 저자와 번역자 사이의 관계를 오르가즘적 합치로 또는 자웅혼주와 같은 관계로 묘사한다. 스타이너(Steiner)는 좋은 번역자들은 원문과 동일한 것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원문에 대해 생명력 있는

균형을 이루는 것을 제시한다고 본다.

3.2. 번역자의 임무와 저자의 임무

옥타비아 파즈(Octavia Paz)에 의하면 우리는 말을 배울 때 번역을 배운다고 한다. 아이가 낱말의 뜻을 물을 때 엄마는 그 아이가 이미 아는 다른 낱말들을 가지고 그 단어를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번역이라 함은 독자가 알아듣도록 다른 언어로 원천 언어를 설명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결국은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본다.

파즈에 의하면, 비록 번역문이라고는 하나 각각의 본문들은 특별하다. 어떠한 본문도 완전히 고유하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그 본질에 있어서 이미 번역이기 때문이다. 곧 비언어로서의 실제 세계에 대한 표현(번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즉, 모든 본문들은 고유하다. 왜냐하면 각각의 본문은 그 자체의 특징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에 있어서 모든 번역은 창조적 작업이고 그러므로 독특한 본문이다.

3.3. 행간 쓰기 그리고 언어 외적 현상

일반적으로, 문자에 초월해 존재하는 내용물은 곧 언어 외적인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우리는 언어의 언어 외적 문맥을 피할 수 없다. 즉 심리적, 문화적, 사회적 요인들이 언제나 작용한다. 사실상 언어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은 비언어적 수준에서 감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감각 또는 인지적으로 편집된 내용물은 언어표현을 요구하게 되어 있다.

의사소통은 기본적으로 연관된 언어의 언어적 관념을 통하여 상대방이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할 것이라는 신뢰를 따라 이루어진다. 그 다음 단계의 의사소통은 무언가를 다른 언어로 전달하는 것으로서, 이는 초보적 단계에서 비언어적인 문맥의 요소에 근거한 해석에 본문이 종속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요소들을 문화적, 감정적, 정서적, 인상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원천 언어를 읽을 때조차도 해석은 동반된다. 비유의 사용으로부터 억양까지, 또한 실제적인 지식으로부터 언어학적 지식에까지. 이윽고 언어 외적 맥락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번역본으로 재생하는 일이 다음 단계이다.

본문은 작가의 의식보다도 더 광대하다. 왜냐하면 언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많은 언어 외적 요소들이 번역자의 개인역사와 문화적 환경으로부터 연원한다. 번역 과정에는 숨은 가정들이 내재한다.

3.4. 참고도서로서의 저자

특별한 용어나 표현 방식 또는 복잡한 인용구들은 결국 번역가들로 하여금 저자들에게 물어서 참조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 가끔씩 번역자들이 어떤 페이지를 번역할 수 없을 때 저자들은 자신의 애매모호함에 대하여 인정하기도 한다. 실제로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는 번역자들에게 많은 것을 배운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지적으로 인해 자신의 스타일이나 논리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하여 개정한다고 말한다.

4. 단어 유희와 언어 게임

4.1. 번역자의 프로크루스테스적 조작

저자가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할 때에 번역자는 얼마나 그 시도를 쫓을 수 있을까? 원천 언어의 이색적 표현들을 수용 언어의 잣대에 억지로 맞추어 넣는, 즉 프로크루스테스적 원리를 번역자는 적용할 수 있는가? 단어 유희는 언어와 문화의 게임, 즉 문법과 구문, 사투리와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에 관계한다. 따라서 번역자들에게 발명적 독창성과 융통성이 요구된다.

원문 그 자체는 이미 ‘내적 번역’(domestic translation)을 통하여 확장되거나 풍부해져 있다. 번역자는 ‘표준’ 원문보다는 확장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원문을 만나기가 쉽다. 그러나 그럼에도 표준에 어긋난 표현을 통하여 더욱 쉽게 원문에 접근하게 된다. 그것이 단어 유희든 음색의 문제이든지간에 말이다. 원저자가 문법에 어긋나게 표현하면 번역자 또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다.

번역자는 어떤 면에서 제3의 언어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다. 특히 숙어나 은유들의 문제에 있어서도 번역자들의 과제 중 하나는 이국적 표현을 유지하느냐, 토착화시키느냐, 아니면 생략하느냐 이다.

언어와 본문의 장애들은 번역가의 독창적 창조성에 도전한다. 그러나 문화적 영역에 있어서 문화적 요소들을 강조하는 배경적 지식의 사전들은 번역자들의 주의를 상승시켜 더 나은 표현에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살아 있는 은유들과 숙어들을 제공할 것이다. 작가가 언어적 한계를 넘어설 때 번역자 역시 원문의 본래 의미가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보다 더 구부리거나 펴는 게 필요하다. 기본의 프로크루스테스와 같은 번역 원리 즉, 무리하게 원문에 충실하게 맞추려고 하는 방법은 이제는 지양할 때이다.

4.2. 허풍쟁이 번역자

번역자들은 독자로 하여금 지금 번역물을 읽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게끔 한다. 마치 영화감독이 관객들로 하여금 지금 영화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잊게끔 하듯이 말이다. 번역은 그러하기에 어떤 면에서 환상이요 불가능의 예술이다.

다의적 표현들을 다룰 때 번역자는 그것을 해석하여 한 의미로 만들거나 또는 그 다의적 의미를 유지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동음이의어와 모호한 표현들 그리고 다의적 문장 등을 번역하는 일은 수용 언어의 수용성과 포용성의 문제이다. 즉 수용 언어의 한계를 늘여야 하는 문제가 동반된다. 속어의 경우 현재 통용되는 속어적인 표현을 주의 깊게 사용해야 한다. 반면에 이국적인 느낌이 필요하면 독자들에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번역자는 두 언어 사이의 말싸움(duel)을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언어적 문화적 갈등으로부터 평화로운 공존을 이끌어내기 위해 애써야 한다.

5. 구문론

5.1. 구문과 사고

츨스키는 심리언어학적 이론을 통하여 언어 현상은 단지 경험적 연구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복잡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제 사람들은 원언어에 대한 관심보다는 두뇌의 원구조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언어를 창조하는 인간 능력의 형식적 표현으로서의 문법이다. 츨스키에 의하면 구문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일차적이다. 반면에 깊은 구조는 이차적이어서 구문을 통한 표피구조로 변형된다고 주장한다. 이곳에서 변형적 문법(TG)이 출현한다. 이 TG의 다른 요소들이 바로 의미론과 음운론이다. 최근에 츨스키는 어린아이들은 보다 더 선천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지배된다고 주장한다. 즉 아이들은 본래 보편적 문법(Universal Grammar) 즉 일반적인 지적 능력과는 독립된 언어 능력을 뇌 구조 속에 타고난다고 본다.

저자인 피 크발레는 어느 정도 이러한 주장 즉, 언어 이면에 기본적으로 지배하는 원리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한다. 이러한 언어원리들이 사고 또는 생각의 원리들과도 같은가 아니면 별개인가?

크리스테바(Kristeva)는 언어는 무의식적 의미의 수준과 의식적 상징 수준의 두 가지로 구성됨을 이야기하였다. 언어는 이러한 의미와 상징의 끊임없는 충돌의 변증법적 과정이다.

중요한 문제는 구문이 사고를 결정하는가 아니면 반대로 사고가 구문을 결정

하는가의 질문이다. “나의 언어가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가?” 아니면 “나의 생각이 나의 언어를 지배하는가?” “나는 과연 어느 영역에서 역할을 하는가?” “나는 도대체 무언가를 조절할 수는 있는가” 이 모든 것에는 자동성(automaticity)이 관련되어 있다. 즉 형식적 언어학의 범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동성이 개입되어 있다.

네델란드 과학자 모르크 베르덴(Moerk Verden)은 의식세계에 있어서 ‘I’와 ‘Me’를 구분한다. ‘I’는 의식적 결정자로서의 ‘I’인 반면에, ‘Me’는 무의식적 행동과 인상의 주체자이다. 그는 주장하기를 우리의 대부분의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식적 ‘Me’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번역할 때에 우리가 ‘I’ 현상과 ‘Me’ 현상 둘 다를 반영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

5.2. 병렬문과 종속문 그리고 구문론적 공백들(syntactic lacunae)

저자 피 크발레는 촘스키에 대한 비판으로서 심층언어구조에 대한 관심이 심층보다 한층 위의 언어구조에 더 집중했다라면, 또한 한 발 더 나아가 실제 언어 사용에 대하여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았으리라고 지적한다. 피 크발레의 제안은 촘스키의 ‘언어적 능력’에서 ‘소통적 능력’으로 관심을 돌려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구문론에 관한 결론적 제안으로서 언어의 심층구조가 아닌 표면적 구조의 수준에서 번역에 관계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5.3. 꿈과 사고 그리고 양과 형태

심리언어학과 신경언어학 그리고 인지과학의 발전 등을 통해서 꿈과 사고 그리고 말하기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학제간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사고와 언어의 관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단어 없이 생각하는 것은 가능한가의 문제 등이 탐구된다.

인지과학자인 줄리언 제이네스(Julian Jaynes)는 구약성서 시대의 사람들과 현대 사람들의 인지 체계는 전적으로 다름을 주장한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신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인 반면에 현대인들은 자기 관조적이며 문제 해결 지향의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뇌의 이원적 인지구조는 계시적 신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려오지 않게 되는 시점에서 사회적 무질서 가운데 와해되어 버렸다. 그러나 오늘날도 여전히 종교적 무아지경 가운데 과거의 인지체계의 흔적들을 찾아 볼 수 있다.

5.4. 소리-이미지-기호-글

기호학은 넓게는 기호체계와 관계한다. 기호들은 구두 언어(verbal language)

와 상응한다. 유아는 목소리 높낮이를 통해 안전이나 두려움을 보이며 반응하지, 문자적 소통을 통한 의미에 반응치는 않는다. 인간의 목소리 자체가 의미를 전달한다. “인간의 목소리 자체가 풍성한 뉘앙스를 지닌다.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는 언어가 없는 사람들과 통한다. 한 아기가 우리의 목소리 높낮이를 듣고 기쁨과 두려움을 구별한다. 목소리 자체가 의미를 지닌 도구가 된다.” 번역자는 본문의 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번역자는 자신 안의 특정한 목소리를 가진다. 이 목소리는 곧 같은 언어를 가진 여러 사람들과 통용되는 목소리이다. 가장 원초적인 것은 자궁에서 태아가 느끼는 리듬과 엄마의 목소리이다. 즉 리듬과 목소리가 가장 원초적이다. 언어 외적인 소통이 언어적인 소통 보다 먼저 온다.

6. 뜨거운 양철지붕, 삐걱거리는 눈 그리고 다른 문화적 거주 지역

6.1. 개념들

노암 촘스키와 그의 전통을 따르는 언어학자들은 객관적 실체와 객관적 언어의 상응을 가정한다. 따라서 이 언어의 문법이 그것의 의미와 우리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연구된다. 그러나 번역은 이와 반대로 언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것을 다루기에 반드시 언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한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번역학이다. 그런데 촘스키와는 달리 라코프(Lakoff)와 존슨(Johnson)은 우리의 일반 개념체계는 객관적이기보다는 그 성격상 비유적인 것으로 본다. 직접적인 세상과의 만남은 우리의 언어 이해의 기본 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모든 대상세계는 기본 개념에 있는 것과 같이 이해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만나고 있는 것에 준하여 이름을 붙인다. 비유적 관념은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비유 이론은 번역학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차지한다. 왜냐하면 비유는 우리의 사고의 기본 요소로 부상하기 때문이다.

6.2. 성서적 개념과 번역적인 증재

“빛”이라는 단어가 없는 종족의 언어로 시편 27편 1절의 성서를 번역하려 할 때 해결책은 ‘주는 나의 등잔불이요 구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전체를 적절하게 해석해서 표현해 주는 것이 낫다. 즉, ‘주는 나로 하여금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성경 번역에 있어서는 이처럼 개념적 내용들을 상이한 문화 가운데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구원’과 ‘구원 받다’의 표현은 의미상

의 차이로 인해 많은 신학적인 차이를 낳게 된다.

성서 번역 역사상 히브리어의 희랍어 번역은 히브리 사고와 문화의 큰 변형을 경험하게 하는데 사실은 확장과 질적 향상을 가져온 것이라 볼 수 있다. 루터의 독일어판 성서 번역은 성서무오주의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았으나 루터 본인은 ‘정확하고도 적당한 독일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를 그들에게 겸손히 묻고 있다. 특히, 로마서 3장 28절의 해석 가운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는 구절에서 라틴어에는 없는 “오직”이라는 말을 루터가 첨가했다. 이에 대하여 루터는 오직이라는 말은 “본문 그 자체의 의미” 가운데 요청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이러한 루터의 입장은 우리가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번역자의 글”인지에 대한 물음을 갖게 한다. 이러한 질문은 곧 우리가 성서를 번역할 때 종교적 거룩성을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중적 통용성을 집중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한다. 따라서 번역자는 첫째, 오래된 번역본과 새로운 번역본 그리고 사전들과 용례사전 등을 부지런히 참고해야만 한다. 둘째, 비유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의 스타일이 아닌 성서 본래의 여러 문학적 스타일의 부각을 노력해야 한다. 셋째, 성서가 쓰여진 시대의 문화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넷째, 히브리 성서의 생략의 문제(특히 주어와 술어 사이의 접합부가 자주 결여되어 있기에)를 주의해야 한다. 다섯째, 특히 셈족어 배경에 대한 이해가 요청된다.

6.3. 문화적 상관관계와 상호조정

문화 간 교통은 문화 간 대결을 야기한다. 민족적 성격이 다르듯 언어 또한 그 기본적인 색채와 리듬에서 상이함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사실은 모든 문화는 차용된 것이요 사실 번역자들이 문학사를 거쳐서 그러한 차용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것이다. 오늘날 정보의 홍수 가운데 걱정하는 이들도 있으나 인류학자 프리드리히 바르트는 거대한 문화적 차용은 시대마다 자연스러운 특징이었음을 지적한다. 우리의 것은 문화적 수입에 의한 창조이다.

번역자들은 최소한 두 정체성을 띠게 된다. 그러나 이 정체성은 끊임없이 갱신된다. 그리고 언어 사이에 소통하는 이들은 동시에 그들의 상이한 정체성 사이에서도 보다 쉽게 교통할 수 있다. 그러나 번역자는 항상 양자의 문화에 대해 대조적 연구를 수행해야만 한다.

많은 문화적 특징들은 다소 제도적인 것이다. 한 문화에서 특징적 제도 위에 기반한 문화적 표현을 번역하기란 힘든 일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동일한 의미를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는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실체들을 토착화하여 표현하는 것은 가능하다. 번역자들은 항상 조절자가 되어야 한

다. 번역자들은 저자의 목소리를 없애서는 안 되지만 모국어 사용자들로 하여금 번역자의 목소리를 듣게끔 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번역자는 연출자이며 번역은 예술이다. 즉, 번역자는 연기자이다.

7. 무엇에 관한 것인가

7.1. 이해와 의미

데리즐(Delisle)에 의하면 번역자는 단어들이 아닌 단어 이면에 담긴 의미를 번역하는 것이라 한다. 왜냐하면 사전적 단어의 의미는 문맥상 다른 뜻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번역은 그 정의상 의미의 문제이다. 의미 또는 뜻을 드러냄 자체의 개념은 번역의 행위를 함유한다. 따라서 모든 정의를 내리는 것 자체는 곧 번역이다. 더 나아가 비유 또한 번역이다.

의미론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미론 외적인 상황에 의지해야만 한다. 괴델이 수학에 대하여 이야기하듯이 의미론은 그 자신의 용어로는 자신을 증명할 수 없는 공리적 체계로서 반드시 외적인 체계와 명제들로 증명되어야만 한다.

의미에 대한 정의는 어려운데 그래함(J. Graham)의 경우, 의미는 언어적 형태와는 관련 없는 언어의 다른 측면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의미는 언어적 형태와 상관없이 번역이 가능하다. 그에 의하면 번역은 관념적 추상화이다. 번역은 단순한 의미의 전달이 아닌 원문의 실체를 얼마나 옹기나 하는 질적인 측면 또한 포함하고 있다. 그래함의 주장은 원칙상 번역은 언어들 사이에 가장 내적인 것의 표출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과 원문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후대의 언어 게임 이론에서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 용법을 찾으라고 결론을 내린다. 즉 의미론의 이론을 연구하기보다는 언어의 기능과 목적 그리고 역할에 대한 연구를 강조한 것이다. 왜냐하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의미에 대한 연구는 결국 언어적 자살행위로 끝나고 언어 세계 밖의 영역인 종교적, 미학적, 윤리적, 음악적 세계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데리다와 같은 철학자는 진리 곧 의미를 찾는 작업에 있어서 이 의미는 반드시 언어경계를 넘어가야 함을 언급한다. 곧 의미는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있어서 번역의 문제는 다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에게 다름은 현재에 있어서 다른 것과 더불어 의미가 확정되지 않고 미루어지는 것을 의미(곧 differ와 defer 둘 다 의미)한다. 결국, 최종적인 의미는 없으며 이로부터 해체주의적 관

점이 성립된다. 이같이 신비평주의에 근거한 해체주의적 분석은 상이성과 변화, 생략과 복잡성에 대한 관심 등을 강조하는 번역학을 생각나게 한다.

해석학은 해석의 과학이요 방법론이다. 해석학의 기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무슨 의미의 중요성을 주고 있는가이다. 술라이에르마허(1768-1834)는 언어-사고의 축은 그것의 환경과의 연관성 가운데 서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환경은 역사적 변화에 종속되어 있다. 따라서 똑같은 의미란 없다고 주장한다. 번역자가 똑같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것은 허구라는 것이다.

딜타이(1833-1911)는 인간의 이해에는 감정 이입이 동반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의 사고와 경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딜타이에게 객관성은 필요치 않다. 마틴 하이데거(1889-1976)는 이해의 시간적 차원뿐만 아니라 언어적 차원이 실재임을 주장한다. 모든 이해와 모든 번역은 존재의 역사성에 근거하는 것이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번역은 우리 존재의 역사의 일부이다. 중요한 번역의 문제는 두 본문 사이의 동일한 의미를 얻는 문제가 아니라 번역의 상황에서 상황과 대상 사이의 특별한 긴장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있다. 위르겐 하버마스(1929-)에게 번역은 본문의 객관적 의미나 의의에 대한 재생이 아니라 본문에 대한 역사적이고 주관적으로 결정된 이해의 산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학적 논의들에도 불구하고 저자와 번역자는 여전히 존재하는 실체이다. 데리다와 같이 본문이 해석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명작품은 우리의 해석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피 크발레는 다음과 같이 해체주의적 입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는 우리가 책을 펼 때에 실체가 존재하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7.2. 동등성 - 하나의 의미 없는 개념?

저자 피 크발레는 동등성 또는 일치 개념 자체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언어학자들에게는 반대한다. 동시에 나이다의 형식적이고 역동적인 동등성 자체에 대해서는 또한 동의하지 않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다른 종류의 동등성 또는 일치들을 상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등성 논의에서 동의하는 바는 동등성 개념이 번역학에서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개념이 여전히 번역에서 쓰이려고 한다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상대적 동등성으로 쓰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즉 원문과 번역문 사이에 적당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말이다. 이렇게 동등성이 상대화 개념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원문 자체에서 절대적 정확한 개념의 결여와 해석학적 지평에서 동등성을 생각해 볼 때 모든 자명하게 보이는 동등성 개념

들은 그렇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성 개념은 원문과 번역문 간에 서로 상응하는 점들에 대한 탐구에 있어서 기초가 된다. 즉 동등성 개념을 어느 정도 상정해야 함을 필자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 발 더 나아가 번역학 연구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적인 아닌 동적, 즉 과정으로서의 ‘성공적 번역’; 2) 기계적 번역이 아닌 예술적 번역; 3) 언어학적 개념에서가 아닌 기호학적 개념으로서의 (보다 더 포괄적이고 인식론적인) 번역 등.

8. 번역의 과정 - 결합의 신비

8.1. 블랙박스 찾기

번역의 과정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기에 블랙박스로 표현되고 있다. 이 블랙박스에 대한 통찰과 그 과정의 요소들에 대한 설명은 심리언어학과 본문 언어학 그리고 신경언어학에서 밝히려고 하는 항목들이다. 번역 과정에 있어서 ‘원천 언어 중심’과 ‘수용 언어 중심’은 답답한 개념에 불과하며 이제는 새로운 중심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자기관조적 방법론이다. 그 과정은 자동성과 복잡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비인지적 요소들 역시 번역 과정에서 실제로 작용한다.

번역에 있어서 복잡한 과정이 수행되는데, 표현되는 한 문장의 여러 요소들의 조직과 통합은 일정한 박사 원리에 근거한다. 그리고 여러 가능한 단어들 가운데에서의 단어의 선택과 실제적 쓰임을 위한 적용 등의 일련의 단계들이 이루어진다.

8.2. 번역 과정이 개념화될 수 있는가?

많은 이론가들은 이 질문에 대하여 불가능하다고 대답한다. 스타이너의 경우, 번역은 불가능하며 환상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유셉(Youssef)은 번역을 인지 현상으로 보고 원문 또는 번역문이 아닌 번역자 개인이 중요함을 지적 하였다. 따라서 번역 과정에 대한 이론은 개인적 번역자에게 기초한다고 하였다. 또한 프랜시스 오우버트(Francis Aubert)는 원문과 번역문 위주의 이원화가 아니라 번역자-중심의 제3의 방향으로 번역 과정의 중심축을 두고 있다. 페르그니어(Pergnier)는 번역의 과정을 원문의 주석과 번역문의 구성으로 본다. 삭스(Sachs)는 번역의 과정에서 의미론적 실체가 표면적 언어 구조보다 더 중요함을 의미심장하게 다루고 있다.

번역의 과정에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번역자의 직감이다. 의식적인 ‘I’에 의한 공들인 번역 작업보다는 때로는 무의식적인 ‘Me’의 의미 파악이 더욱 많

은 정보를 주는 때가 있다. 번역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세 과정으로 나타난다: 1) 본문의 이해; 2) 번역문의 재구성; 3) 완성된 본문의 확증 등으로 전개된다.

끝으로, 저자는 최근에 들어서 컴퓨터 인터넷을 통한 최첨단의 정보와 멀티미디어의 디지털문서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하고 있다. 번역자에게 있어서 디지털 문서의 발전은 속도와 편리성에 있어서는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나 동시에 번역자나 일반 사람들에게 상상력을 빼앗아 가는 어려움 점이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9. 평가

본서의 공헌은 번역학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함으로써 단지 언어학의 아류로써 여겨지던 번역에 대한 연구를 객관적인 번역학(science of translation)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점이다.

저자인 피 크발레가 번역학의 이론 정립을 위한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된 요인들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 요인은 제롬으로부터 현대 인터넷 문서에 이르는 일련의 번역의 역사에 대하여 일관성 있고 포괄적인 연구를 실행하고 있는 점이다. 그의 번역사 연구는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의 성경 번역으로부터 르네상스 시대와 낭만주의 시대의 인문주의적 번역, 괴테의 세계문학적 관념의 번역을 거쳐서 현대의 월터 벤자민, 힐레르 벨로크, 브라디미르 나보코프, 그리고 노암 촘스키, 유진 나이다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번역 이론들을 망라하고 있다.

둘째 요인으로는, 이러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서 그의 번역학 논의 자체가 탄탄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프레드릭 바르트와 같은 인류학자의 논의를 통한 문화적 소통 번역, 언어학적 개념을 넘어선 기호학적 개념으로서의 인식론적인 번역 등의 학제간 연구의 결과들을 비롯하여 촘스키의 심층구조와 표피구조로 대변되는 변혁론적 문법 이론과 월터 벤자민의 바벨탑의 언어혼돈으로부터 통합적 순수언어로 인도하는 언어 메시아론 그리고 해석학의 인식론적 전제의 난제에도 불구하고 구문론과 의미론의 대결구조를 해결하는 철학적 논의들에 피 크발레의 번역론이 근거하고 있다.

끝으로, 번역학을 위한 저자의 방법론 자체가 열려 있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기존의 언어학적 틀에서 벗어나는 학제간 연구 방법론뿐만 아니라 정적 번역이 아닌 동적 번역, 기계적 번역이 아닌 예술적 번역,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들어서 대두되는 필름과 미디어와 같은 비문학적 본문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는 연구 태도는 단지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적용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공헌을 하리라 기대된다.

본서의 장점 중 하나는 저자 자신이 많은 글들을 번역한 베테랑답게 실제적인

번역 문제에 대한 속고가 뛰어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루쉬디(S. Rushdie)의 문학을 언급하면서, 그의 영어 문법을 넘어선 글들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점이다. 루쉬디는 우르두(Urdu)와 힌디(Hindi)의 인디언 영어를 사용하면서 무언가 더 낮고 흥분된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번역자 또한 기존의 언어 표현을 넘어선 새로운 가능성으로서 이상하게 들리더라도 모험을 감행하듯 언어의 문법적 울타리를 넘나들어야 함을 제안한다. 그러나 본서의 또 다른 장점은 이러한 번역 이론들을 전개하는 퍼 크발레의 태도는 상당히 중립적인 데에 있다. 번역 전문가로서 번역의 독립된 기능과 고유한 측면을 강조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번역 자체의 제한된 측면 또한 주의 깊게 고려하기 때문이다. 즉 번역문의 창의성을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번역문이 완전히 고유한 작품으로 취급될 수 없음을 말한다. 왜냐하면 완전히 고유한 번역문은 위조 또는 제3의 언어로 표현된 번역문이기 때문이다.

균형 잡힌 저자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본서에서 지적될 만한 문제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다. 먼저, 전문적인 개념과 표현들이 충분한 설명 없이 논의 과정에 동원되고 있는 점이다. 퍼 크발레 저자 자신이 서두에서 본서는 번역 전문가뿐만 아니라 번역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도 읽힐 수 있는 책으로 의도되었다고 진술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전문적 언어학과 해석학 이론에 능통치 못한 일반인들이 소화하기에 본문의 내용들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둘째로, 유사한 언어 연구들에 대한 소개가 반복되어 등장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논의와 주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번역의 과정을 밝히는 이론들을 논의하는 제7장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의미상의 큰 차이 없이 제시하는 삼단계의 번역의 과정에 대한 진술들을 지루하게 나열하고 있는 점이다. 의도하고자 하는 논의와 부합된 두세 학자들의 이론 소개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끝으로, 언어의 심층구조가 아닌 표피구조와 관련된 번역학을 이야기하면서 저자 자신은 너무도 심오한 심리언어학적 논의들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즉,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이전(移轉)의 사정을 밝히는 구문론적이고 의미론적인 그리고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제학문적 탐구는 좋으나 다양한 학문의 토의들에 집중한 나머지 번역학 자체의 단순한 이론체계의 정립과 실천적인 적용을 위한 실제적 번역 가이드의 제시는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번역 종사자들에게 본서가 얼마나 호소력 있으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마치 차려놓긴 많이 차려놓았는데 막상 무엇을 어떻게 골라 먹어야 할지를 모르는 격이다. 유용한 이론들이 광범위하게 검토되었으나 최종적인 정리와 마무리가 부족한 느낌이다. 실용적인 번역 이론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2% 부족한 요소가 개정판을 통해 채워지길 기대해 본다.

<Abstract>

Book Review-*From St. Jerome to Hypertext: Translation in Theory and Practice*

Prof. Keun-Jo Ahn
(Hoseo University)

As we read the title, *From St. Jerome to Hypertext*, this book attempts to discuss every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in human history. In each chapter of the book the author raises almost all the translation issues with which other translation theorists have struggled thus far. Through a comprehensive exploration of the various theoretical tasks, this book aims to build a science of translation. The author employs interdisciplinary studies as the methodology of his study.

Chapter 1 introduces a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translation studies from the “sense to sense” principle of St. Jerome’s translation to the recent *translator-oriented* translation of Aubert. Chapter 2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or and translator. There was a Lord-servant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n the past. Nowadays, however, the active and original role of translators has emerged. Chapter 3 furthermore emphasizes the translator’s creativity in dealing with ambiguities in the original text. Chapters 4 and 5 respectively reflect the issues of syntax and semantics. The author tries to extend his discussion out of the linguistic studies into semiotic level in these chapters. Also, cultural and historical considerations are taken into account. Chapter 6 has more developed semantic studies in relation to the problems of understanding. Hermeneutic theories seek for encounter points with translation studies. The traditional concept of “equivalence” is being reconsidered as well. Finally, chapter 7 shows the author’s efforts to conceptualize the process of theory in order to build a science of theory. Per Qvale concludes that translation itself operates between two worlds that are represented by two different languages to bridge a mysterious conjunction.